

사랑방 인도자 교재(2019년 9월)

인제 확신하게 되나요?

에베소서 1장

3. (7-12절) 그리스도와 연합함에서 나오는 죄사함과 속량은 어떤 은혜를 말할까요?

1.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할까요?

- a.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면서 “내 안에 주 계시다!”라고 외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각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 b.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지매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그 안에서 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연합되고 일치되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c. 적용: 요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순종하며 교우들과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신가요? 무엇이 방해 하나요? 무엇이 도움이 되나요?

2. (3-6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 a. 물질적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가리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을 의미하고 하늘에 속한 복을 의미합니다.
- b. 다른 것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 되십니다.
- c.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자녀 되게 하시려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d. 적용: 하나님이 당신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언제 의심이 드나요?

4. (13-14절) 성령의 인치심이란 무엇일까요?

- a.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죄사함과 속량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 b.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통회하며,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 문제는 피흘림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것을 압니다.
- c. 속량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천주적, 민족적, 세계적인 범주를 성경에서 말하지만 특히 우주적인 의미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값을 속량하여 주심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회복을 말합니다.
- d. 속량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빈곤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확신하며, 그 풍성함을 남에게 베풀게 됩니다.
- e.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경험할 때 교회는 온전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f. 적용: 당신은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과 속량을 받았습니까? 그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고 계신가요? 어떻게 베풀고 계신가요?

a. 복음을 듣고 믿어서 중생을 경험한 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견해와, 믿었다고 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과는 별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어떤 내적인 경험과 확신을 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b.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사역은 죄인이 회개하고 믿게 하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신한 일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

- c. 적용: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언제 느끼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5. (15-19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a.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려져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을 떼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 b.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지성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 c. 마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지식 그 이상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 d. 마음의 눈이 떠지면 또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 e.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선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여야 합니다.
- f. 적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6. (20-23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a.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 b.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됩니다.

- c.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권능으로 만물을 밟아 레 북쪽케 하신 것이며,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d. 리차드 니버가 얘기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의 다섯 가지 유형은:

- i. Christ against Culture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 ii. Christ of Culture 문화의 그리스도
 - iii. Christ above Culture 문화 위의 그리스도
 - iv.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
 - v. Christ Transforming Culture 문화 변혁자인 그리스도인데 이 중 그리스도가 머리되신 교회의 성도는 다섯 번째 유형으로서 그리스도가 성도를 변혁시키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 머리와 몸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순종이 더 이상 굴종이 아닌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머리가 되셔야 헌신이 더 이상 손해가 아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 f. 적용: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삶을 사시기 때문에 요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진정한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 우리가 정,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까요?